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공동협력

진안군-진안군의회-한국동서발전, 성공 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 의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별 대표를 비롯한 주민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파크 조성 관광 자원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안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천면 일원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로 지난해 공식화 한 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100년 향토기업의 유치로 이어져 지역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인구 증가는 물론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도 증가하는 등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 의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춘성 군수는 "오늘 업무협약은 희망찬 미래 진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군민의 염원을 담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한국동서발전에 전달했고, 군민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진안양수발전소를 유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수발전소 선정 과정은 올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 한국동서발전에서 19일 제출된 진안군의 유치신청서를 근거로 산자부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는 2025년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산악관광단지 조성 본격 시동

장수군, 신광재 일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선정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신광재'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돼 국제산악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으로 글로벌 산악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산림휴양, 치유·웰빙, 산악레포츠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장수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입지선정기준 부합성, 차별화된 개발컨셉, 창의적인 공간구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군 산악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신광재 지구 산악관광 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핵심사업인 △360° 조망 숙박시설 △산악랜드 조성 △숲정원 및 야생화정원 조성 △트리로드 및 구름다리 설치 △산악홍보 및 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산악관광단지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자치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악관광 1번지로의 도약과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군의 사업계획은 자연과의 균형을 고려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실현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선정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성장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산악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동부권 발전 위해 힘 모은다

전북자치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무주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제14차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제9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을 비롯해 각 지역 정보 및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설상희 임실부군수, 염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한 각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8기에 이어 9기 협의회장을 연임하게 된 황인홍 무주군수는 "동부권 각 지역이 역량을 모아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지방소멸위기 등 동부권이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에서 영호남 지역 유일의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남원시가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해 동부권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무주군은 '고압 송변전 시설 설치'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동부권의 신성장사업 및 공동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진안군이 겨울철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9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인 진안고원 시장에서 장보기와 점심 식사를 가졌다.

전 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역 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10일부터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과 안정대책반을 편성하고, 기간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촌활력과장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장으로 총괄반, 농산물반, 축산물반, 임산물반 등 4개 반을 편성돼 물가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대책 방안을 구상한다.

기간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8개 시책과 2025년부터 시행하는 2개 시책 등 총 10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시책으로는 △연말연시 회식·모임 시 관내 식당 이용 △물품 구매 시 관내 소규모마트(슈퍼) 이용 △진안장날(4,9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장보

기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입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외식의 날 확대 및 신설 추진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추진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산물 판매활성화 추진이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하는 시책은 △민생 관련 사업 신속한 추진 △명절 선물 구입 시 관내 농특산물 및 물품 구입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군청 구내식당을 주 4회 운영에서 주 3회 운영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해 지역 음식점 이용률을 높이고, 회식과 모임 등은 관내에서 추진하는 등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선보이기로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탄핵정국으로 인해 더 심화되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정책 추진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열려

무주군은 지난 18일 2024년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정위원장 황인홍 무주군수, 민간위원장 홍진흥)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무주읍 천지가든 2층 보고회장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올해 협의체 성과를 공유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행정위원장(무주군수)과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군·읍면 협의체 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지니 사업부장, 반디누리작업장 신선종 팀장,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기환 부위원장, 착한가게-달동네슈퍼 송순분 대표가 협의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으며 안성면행정복지센터 박은정 맞춤형복지팀장은 무주군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무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홍민 부위원장은 △복지자원 발굴을 비롯한 자원봉사의 날 운영, △특화사업, △부부 사진 찍기, △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추진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관문, 부귀면에 '관문안내판' 시범 설치

진안군은 진안고원의 관문인 부귀면 소재지에 관문안내판을 제작·설치했다.

관문 안내판은 마이산을 상징하는 화강암 기단 위에 4m 높이의 조형물로, 황금 동굴이 발견되는 지역인 만큼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금반지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금 도색 스틸 강판에 각을 줘서 각도에 따라 햇빛에 반짝반짝 빛이 난다. 또한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면민 및 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또 하나의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부귀면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관문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디자인 및 설치 위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부귀면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등 면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설치했다.

또한 2025년도에는 나머지 읍·면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관문 안내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에 제작된 관문안내판은 지역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제고는 물론, 향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스탬프 투어 포토존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진안군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계면 지사협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개최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현·임재성)가 지난 17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미리 설레고, 미리 행복해지는' 2024년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영곤 장수교육지원청장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 마술 프로그램이 진행돼 아이들에게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선사했고,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캐리어와 성탄 과자 선물세트도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특히 행사 중 진행된 '소원을 말해봐' 활동에서는 한 아동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 감동을 더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